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캠 알드레드가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마운드 위에선 나쁜 남자... ‘폭주 기관차’ 기대하라”



KBO 데뷔전 앞둔 KIA 새 외국인 투수 알드레드 “1위팀 합류 기뻐...스위퍼·싱커로 상대 제압할 것”

‘사이 가이’가 마운드 위 ‘폭주 기관차’를 예고했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캠 알드레드가 KBO리그 데뷔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5월 31일 입국해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워밍업을 했던 알드레드는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단과 상견례를 갖고 ‘타이거즈맨’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캐치볼을 하면서 몸을 풀 알드레드는 취재진을 만나 새 팀에서의 새 출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수줍은 표정으로 “마운드 밖에서는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마운드에서는 나쁜 남자가 된다. 180도 바뀌서 공격적인 성향으로 공을 던진 다”고 밝혔다. ‘폭주 기관차’ 같은 질주를 예고한 알드레드의 등판 일정은 미정이다. 아직 시차 적응과 취입 비자 발급이라는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

KIA는 비자 발급이 완료되면 컨디션을 점검해 알드레드의 등판을 준비할 예정이다. 따르면 이번 주말 두산과의 원정경기가 알드레드의 KBO리그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알드레드는 “놀라운 팬들과 경기장을 갖춘 KIA에 와서 감사하다. 이곳에 올 수 있어서 행운이다. KIA가 1위라고 들었는데 합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직 많은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제임스 네일이 형으로서 KBO 타자들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해 줬다. 아직 KBO를 잘 모르지만 배우가 도록 하겠다”고 KIA에 온 소감을 밝혔다. KBO라는 낯선 리그에 도전하게 된 그는 이곳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생각이다. 알드레드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오게 됐다. 피츠버그에 있을 때 미래가 불투명했

는데, KIA가 선택해 주어서 이곳에 올 수 있었다. 월 크로우와 NC의 카일 하트와 함께 운동했었는데 멋진 곳이라고 들었다”며 “좋은 날씨와 경기장에서 다시 시작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 더운 날씨도 괜찮다. 내가 거주하던 볼티모어가 너무 추워서 오히려 따뜻한 곳에서 던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웃었다. 스위퍼라는 강력한 무기로 KBO리그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네일, 알드레드도 스위퍼로 타자들을 요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알드레드는 “나도 네일처럼 스위퍼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 있다. KBO에서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한다. 싱커도 자신 있다. 스위퍼와 싱커 조합이 좋다. 좌타자 승부할 때 스위퍼와 싱커를 섞어서 던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알드레드는 시즌에 돌입하면 ‘투구수’라는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병호 감독은 이날 브리핑에서 “70~80구”를 예고했다. 미국에서 선발하면서 70~80구를 소화했던 만큼 첫 등판 때 이에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알드레드는 “몸관리가 최선의 환경인 것 같다. 이곳에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구까지 던질 자신이 있다. 준비 잘하겠다”고 말했다. 또 “팀원들도 그렇고 거리에 나가도 다들 존중해 주고 배려심 있게 웃으면서 대해준다. 매운 것도 잘 먹는다(웃음)”며 “곧 시차 적응이 끝날 것이다. 나는 준비가 됐다. 등판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성 복서 첫 올림픽 메달 딸 것”

화순군청 복싱 임애지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

임애지(화순군청·25)가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한국 여자 아마복싱 간판스타임을 재입증했다. 임애지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024 파리올림픽 복싱 2차 세계예선대회(WQT) 여자 54kg급 8강에서 아제르바이잔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며 오연지(울산산체육회)에 이어 한국 복싱에 두 번째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안겼다. 이번 대회 여자 54kg급에는 총 4장의 출전권이 걸려있었다. 4강 진출에 성공한 임애지는 별도의 준결승과 결승전 없이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부전승으로 32강에 오른 임애지는 독일의 나사르 제이나를 상대로 승리하고, 16강전에서 프랑스의 물라이 로마네를 밀어냈다. 대망의 8강전에서 임애지는 아제르바이잔의 제이날 라히모바를 5-0 판정으로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간질긴 승부욕과 가벼운 몸놀림이 장점인 임애지는 2017년 국제복싱연맹(AIBA) 세계유스여자선수권대회 60kg급에서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세계 대회 금메달리스트 타이틀을 얻었다. 그는 앞서 이번 대회 60kg급에서 파리행 출전권을 챙긴 오연지와 함께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에 나선다. 임애지는 지난 3월 이탈리아 부스토 아르시치오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도 8강에 올라 파리 2024 출전권까지 단 1승을 남겨두었지만, 이탈리아의 시리네 카라비에 1-4 판정으로 패하며 눈앞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놓쳤다. 아쉬움을 삼켰던 임애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파리행을 확정지으며 한국 여성 복서 최초 올림픽 메달이라는 ‘새 역사’에 도전한다. 도쿄올림픽 당시 임애지는 여자 57kg급에 출전했고 16강에서 탈락했다. 그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체급을 54kg급으로 낮춘 후 지난해 2월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임애지는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은 만큼 남은 기간 기량 향상과 컨디션 조절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경

력을, 좋은 성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전남도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임애지가 2024 파리올림픽 복싱 2차 세계 예선 대회 여자 -54kg급에서 4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파리 올림픽 진출을 확정지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LPGA ‘우승 갈증’ 누가 풀까

솔라이트 클래식 7일 개막...고진영·김아림 등 한국 18명 도전장

한국 여자골프의 우승 갈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시즌 14번째 대회를 맞는다. 미국 현지시간 7일 뉴저지주 갈러웨이 시부 베이 코스(파71·6190야드)에서 개막하는 솔라이트 LPGA 클래식은 총상금 175만 달러를 걸고 사흘 동안 열린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가장 오랫동안 개막 후 우승 없이 보낸 것은 2014년 시즌이다. 이때 한국 선수 중에 박인비가 6월 2일 끝난 14번째 대회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갈증을 풀었다. 올해 14번째 대회인 솔라이트 클래식에서는 누가 우승 갈증을 풀어줄지가 관심사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18명이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7위로 한국 선수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고진영은 지난해 US여자오픈에서 공동 29위로 밀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솔라이트 클래식에 출전한다. 고진영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이 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다. 당시 고진영은 쉐린 부티에(프랑스)에 1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아림, 신지은, 최혜진, 안나린, 임진희, 성유진 등도 한국 선수 시즌 첫 승에 도전하고,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김인경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와 우승을 경쟁할 선수들도 강력하다. 지난주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제패한 사소 유카(일본)가 출전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PGA ‘별 중의 별’ 누가 될까

메모리얼 토너먼트 개막...‘세계 1위’ 셰플러 등 톱랭커 총출동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특급 대회인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달러)가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7569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앞으로 3주간 이어질 열전의 시작을 알린다. 다음 주에는 메이저 대회 US오픈이 열리고 그 뒤엔 또 다른 특급 대회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주 RBC 캐나다오픈을 건너뛰고 숨을 골랐던 세계 톱랭커들이 이번 대회부터 총출동한다.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9명이 출전자로 이름을 올렸고, 톱5 중에서도 44명이 경쟁에 뛰어 들었다. 우승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단연 스코티 셰플러(미국·세계랭킹 1위)다. 셰플러는 올해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를 포함해

4승을 올렸고 준우승 2차례, 3위 1차례를 거뒀다. 올 시즌 12개 대회에서 톱10에 들지 못한 적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공동 17위) 단 한 번뿐이었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잰더 쇼플리, 윈덤 클라크, 콜린 모리카와(이상 미국) 등이 셰플러의 아성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 임성재, 김시우, 김주형이 출전한다. 임성재는 지난달 웰스파고 챔피언십 공동 4위,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 공동 9위에 오른 점을 평가받아 PGA 투어닷컴 파워랭킹 8위에 올랐다. 2018년 대회에서 연장 끝에 준우승한 안병훈은 11위, 최근 4년 연속 이 대회에 20위권에 진입한 김시우는 13위에 랭크됐다. 김주형도 지난주 캐나다오픈(공동 4위)에서 시즌 첫 톱10을 수확한 만큼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VNL 2주차 예선 4연패

12일 일본과 3주차 예선 시작

대한민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4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첫 승의 기세를 잊지 못하고 4연패에 빠졌다. 한국은 지난 3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칼리지 파크센터에서 열린 2주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15-25 12-25 18-25)으로 졌다. 이날 경기에서는 이주아(IBK)·정지윤(현대건설)

설)이 팀 내 최다 득점인 6점, A페퍼스의 박정아는 5점을 올렸다. 또 문지윤(GS칼텍스)이 4점, 강소휘(한국도로공사)가 3점에 그치며 절대 열세를 기록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치러진 VNL 2주차 예선에서 4연패를 당했다. 한국은 5월 20일 태국을 상대로 치른 1주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3년만의 VNL

승리를 거뒀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5월 30일 2주차 첫 상대인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2-3 역전승을 내주며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한 한국은 이후 3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불가리아전에서 승점 1을 추가했던 한국은 폴란드-튀르키예-캐나다전을 거치며 1승 7패 승점 4를 기록, 14위로 VNL 2주차 예선을 마감했다. 대표팀은 전력 재정비 후 오는 12일 오후 7시 20분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치르는 일본과의 대결로 VNL 3주차 예선을 시작한다. 이어 13일 오후 3시 30분 프랑스, 14일 오후 7시 30분 이탈리아, 16일 오전 11시 30분 네덜란드와 대결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